

[ 사회 ]

# 백운고가 언제 철거하나

‘위험도로’ 5년 방치... 빗길 승용차 충돌 8명 사상

철거 확정하고도 지하철 때문 ‘미적’ ... 주민 불안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도시경관을 해치는 백운고가로도(이하 백운고가)를 조기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한 경사도와 커브길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위험도로시설로 지정된 지 5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백운고가는 경사도 개선을 위해 당초 386m의 연장을 840m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다 주변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2006년 9월 지하차도 및 로터리 신호체계로 변경하는 안이 확정됐다. 시는 사업비 550억 원을 들여 길이 840m, 폭 18m(왕복 4차선) 규모로 지하

차도를 개설하고, 지상은 로터리 신호체계를 도입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미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백운광장 구간이 포함되면서, 위험도로시설인 백운고가가 상당기간 존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비로 공사비의 50%를 지원받던 2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시가 국비 지원폭을 늘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과 백운고가 문제를 병행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차도를 만든 뒤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인 도시철도 2호선을 놓을 경우 다시 지하차도에

대한 공사를 해야하며, 두가지 공사를 함께 할 경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위험도로시설이라고 하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이 아니며, 안전속도와 교통신호를 준수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방지책도 없이 철거가 지체되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고가 주변 주민들 역시 ‘선고가 철거 후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1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이모(여·79)씨가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등 백운고가에 서는 지난 2007년부터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주민 고모(53)씨는 “백운고가를 철거한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운전자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시킨다면 도대체 언제 철거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원형기자 chadol@kwangju.co.kr



12일 광주고등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이 최근 인력과 시설이 대폭 보강된 청사 1층 ‘ONE-STOP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 ‘국민 섬기는 광주고법’

민원실 기능 강화 등 대대적 이미지 쇄신

광주고등법원(법원장 김관재)이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란 구호 아래 민원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청사 ‘간판’을 새로 다는 등 대대적인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청사 1층 ‘ONE-STOP (원-스톱) 민원실’의 인원과 시설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원행정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우선 기존 1명이던 민원실 근무 인력을 3명으로 대폭 늘렸다. 직원 2명과 전담 도우미 1명을 상주시킴으로써 민사, 형사, 신청 등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각종 문의의 접수는 물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전산에 의한 증명 발급과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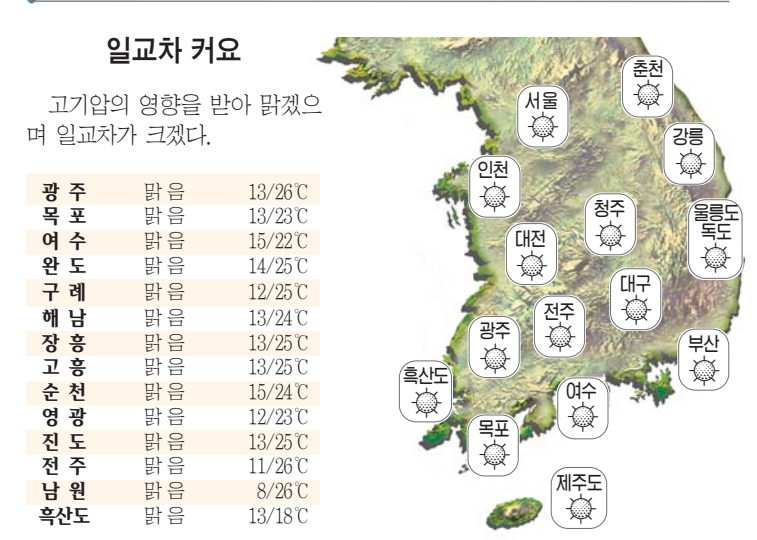
광주고법은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신중으로 교제하고 상담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민원실 정면과 측면 등에 유리문과 유리벽을 설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광주고법의 변화 바람은 슬로건 선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고법은 지난 5일 청사 정면에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원’이란 문구를 새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광주지법 청사 정면 입구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슬로건이 게재돼 있었으나 광주고법 청사 입구에는 아무런 문구가 없었다. 이에 광주고법은 김관재 법원장의 지휘 아래 내부 공모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의미를 담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원’을 선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0분 달뜨기 23시 17분  
 해질 19시 28분 달지기 08시 11분



일교차 커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일교차가 크겠음.
광주	맑음 13/26°C
목포	맑음 13/23°C
여수	맑음 15/22°C
완도	맑음 14/25°C
구례	맑음 12/25°C
해남	맑음 13/24°C
장흥	맑음 13/25°C
고흥	맑음 13/25°C
순천	맑음 15/24°C
영광	맑음 12/23°C
진도	맑음 13/25°C
전주	맑음 11/26°C
남원	맑음 8/26°C
옥산도	맑음 13/18°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목포 04:36	09:5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5m	16:13	21:3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1.5m	여수 10:53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5m	23:43	16:52

## 전남대 5·18유공자에 명예졸업장

전남대학교는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에 참여했다가 숨진 농대생 박문규(당시 18세)씨 등 5·18유공자 2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5·18민중항쟁 당시 전남대 농대 1학년으로 교양인 영암에서 병사체로 발견된 박씨는 동료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처리됐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재조사 결과 군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4월7일자 6면 참조>

박씨는 지난해 12월 5·18민중항쟁 동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명예가 회복됐다.

전남대는 또 1980년 3월 공대에 입학했다가 5·18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하고 같은 해 8월 폭행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고(故) 방인호(당시 19세)씨에게도 가족의 요청에 따라 명예졸업장을 주기로 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백운고가 사고 안타까운 사연

#### 남편 발인 앞 둔 70대 할머니 영정 품고가다 교통사고 숨져

남편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에 살던 동네로 가던 70대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남구 백운고가에서 조선대에서 농성동 방향으로 달리던 ‘05노97××호’가 커브를 돌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광주92가90××호’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강모씨·45)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이모(여·79·광주시 남구 방림동)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두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무원인 강씨 등은 3일 전 부친상을 당했으며, 이날 발인에 앞서 고인이 생전에 살았던 집을 둘러 보기 위해 남구 방림동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다.

사고로 숨진 이씨는 3일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을 품고 아들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김씨는 육군 상병으로 휴가 복귀를 하루 앞둔 이날 새벽 3시께 술을 마신 뒤 친구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4%로 나타났다. 김씨의 신병은 육군 헌병대로 인계됐으며, 김씨는 경상을 입고 현재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씨는 이날 새벽 고향 선배 K씨로부터 차량을 빌렸으며, K씨 이외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사고보상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발인을 치르려던 이씨 유족들은 하루를 늦춰 13일 노부부를 함께 떠나보내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황룡강 주변에도 수달 산다

#### 보호 동물 5종 서식 확인

광주 황룡강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종인 수달이 발견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동물 5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년간 황룡강 수변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를 한 결과 법적 보호종인 수달(전연기념물 330호)과 삵, 말뚝기리,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광산구를 통과하는 황룡강 구간의 4개 습지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는 황룡강의 보전전략과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생태 현황을 조사해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5·18 테마열차 ‘출발’ 광주시철도공사와 (재)5·18기념재단은 12일 서구 농성역에서 5·18민중항쟁 제29주년 기념 테마열차 발차식을 갖고 2개월간 운행에 들어갔다. 테마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이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제공한 주먹밥을 맛보며 5·18체험을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근로자들 국가보조금 유용 한국노총 간부 등 5명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렬)는 12일 국가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A(51)씨 등 한국노총 광주지부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과 200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공동훈련 시범사업보조금’ 3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이 가운데 1천100만원을 광주지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직원 급여 및 회원용 선물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제4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

발견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4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최: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후회: 광주광역시회, 광주광역시공회, 한국전기공사 전남본부, 한국전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일시: 2009.5.17(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08백주 광주중앙운동장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광주광역시회 서구 농성동 60-71 ☎ 061)352-1044 Fax 061)352-7047

회장: 김보선, 총무: 이시, 감사: 박남길, 부회장: 문유근, 선거전문: 여사, 김종길